

6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구역원용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96장 · 성령의 은사를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사도행전 6장 1-7절 | 다같이

“제목 :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1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2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3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4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5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콜라를 뽑아서,6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7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성령강림으로 만들어진 초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재정 규모도 커졌고, 구제해야 할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생겼고, 음식 베푸는 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문제를 함께 나누고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서 재정 관리와 음식 베푸는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질문1)헬라파(그리스 말을 하는)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나요?(1절)

질문2)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택함을 받은 일곱 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말씀적용 | 다같이

1.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 때문에 갈등이나 힘든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요?
2.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3. 교회 일정 나누기

합심기도 및 주기도문 | 다같이

성령의 은사를

196

E. Hatch, 1878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13)

TRENTHAM: 6.6.8.6.

R. Jackson, 1888

보통으로

1.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2. 성령의 은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3. 성령의 은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4. 성령의 은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마 음 가 탐지 욕을 다 행케 하소서
세 상 탐욕을 다 태워 주 소서 아 멘

Breathe on me, breath of God

은사